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신년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품은 말의 해가 동문 여러분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말은 늘 들판을 향해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리지도 않습니다. 말은 바람을 읽고, 땅의 기운기를 느끼며,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한 다음, 온몸으로 그 선택을 밀어붙입니다. 병오년은 그러한 해입니다.

그 속도 그 기상, 뜨거운 에너지와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불(火)은 태우기만 하는 힘이 아니라, 어둠을 밀어내고 형상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불이 성(盛)한 해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정체된 것들이 흔들리며, 새로운 형식과 감각이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언제나 예술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심히 소란스럽습니다. 속도는 가팔라지고, 기준은 흔들리며, 이미지는 넘쳐나고 의미는 쉽게 소모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동문 여러분은 이 혼란 속에서도 조변석개하는 유행보다 느린 질문을 붙들고, 소음보

다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묵묵히 길어 올리고 계시다는 것을...

예술은 늘 시대보다 늦게 도착하지만, 결코 시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이 바람을 가르며 달리듯, 여러분의 작업은 지금 이 시대의 공기를 가르고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무명(無名)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병오년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피어올라 손끝에서 파괴되고 다시 생성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창작의 자세를 잃지 않는 여러분은 이미 이 시대의 가장 단단한 중심입니다. 그 단단함과 도도함이 모여, 우리 서울대 미대라는 이름이 지켜집니다. 새해에도 각자의 작업실에서, 각자의 들판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달리시기 바랍니다. 불의 해에, 말의 기상으로, 더 멀리, 더 깊이...

2025.1. 새해 아침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회장 권영길

##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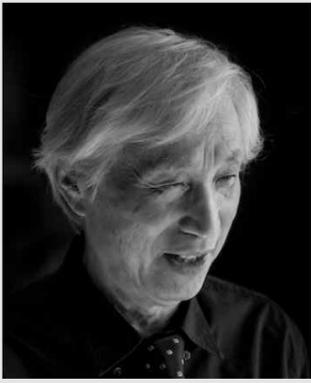
붉은 말의 기운이 힘차게 뻗어가는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은 예로부터 힘과 활력, 전진과 도약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천리마(千里馬)는 뛰어난 인재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용마(龍馬)'라는 표현처럼 말은 용과 함께 고귀함과 성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말의 기운을 받아, 동문 여러분 모두 힘차게 도약하며 하시는 일마다 크게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이 말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말의 정신과도 닿아 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 예술계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년간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동문 선배님들의 창작 정신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넓다는 것을 매 순간 느껴왔습니다. 말이 거친 들판을 두려움 없이 달려가듯, 동문 여러분들의 예술 창작의 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간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저희 미술대학 동문들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술대학은 급변하는 기술,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창작의 의미와 교육의 방향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 결과를 교내외에 널리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술대학은 동문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힘과 전진, 희망을 상징하는 말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행복이 동문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정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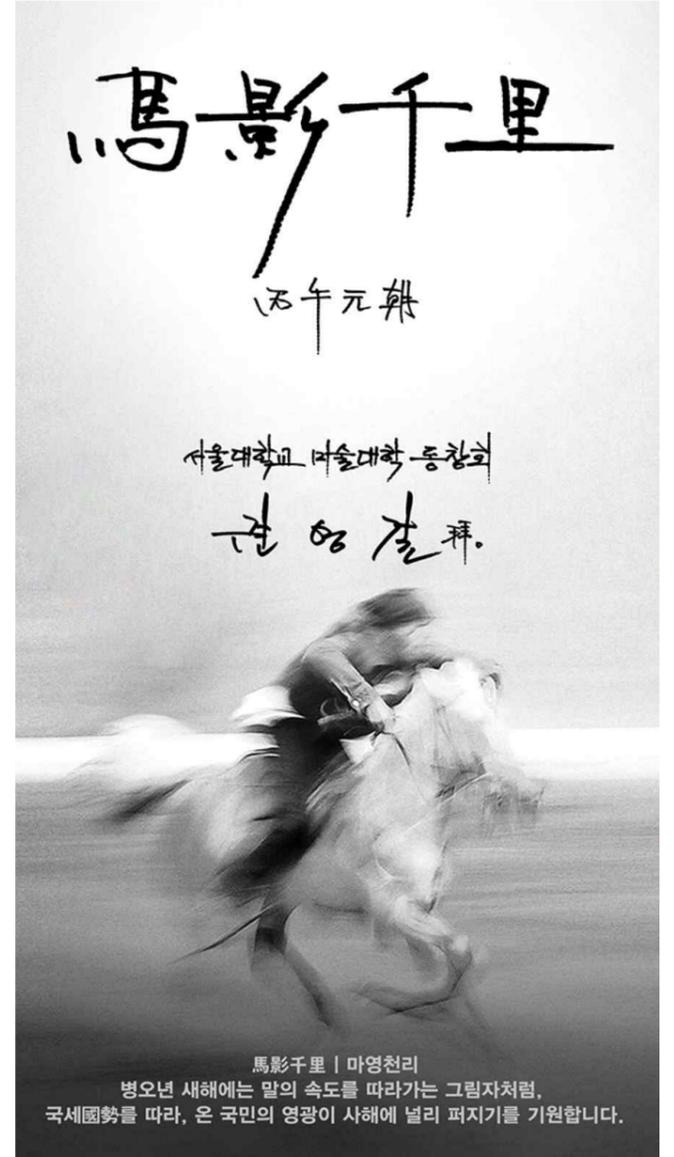
**최종태(54조소) 고문**

병오년 새해가 왔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동문들 집안에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한 해 내내 좋은 기운이 눈 오듯이 앞마당에 가득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형상들이 어깨를 타고 손목을 타고 줄줄이 모양지워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문들 건강을 우선 챙기십시오.  
 그래야 좋은 작품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작품은 두 번째입니다.  
 올해에는 그 두 가지를 다함께 성취하는 동문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새 날을 축하합니다.



**김경인(60회화) 고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1960년대는 격변의 시대적 시련과 가난을 견뎌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송동 교정에는 소박한 낭만이 있었고, 선후배 간에 흐르던 정은 여전히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산업정보사회를 거쳐 AI 시대를 맞은 오늘, 예술 환경은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동문들께서 슬기롭게 적응하며 새로운 희망의 앞날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馬影千里 | 마영천리  
 병오년 새해에는 말의 속도를 따라가는 그림자처럼, 국세國勢를 따라, 온 국민의 영광이 사해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심정수(60조소) 고문**

어제는 노란 가을이  
 이리저리  
 바람에 뒹굴더니  
 어느새 하얀 눈이  
 찬바람에 날리는구나.  
 이 가지 끝엔 노란 눈이  
 빼꼼히 밖을 내다보고  
 저 가지 끝엔 초록 눈이  
 부시시 눈을 비비는구나.  
 그 사이  
 나의 친구는 저 먼 북쪽 포천 땅속으로 갔고  
 한 친구는 남쪽 나라 바닷가에서  
 봄소식을 전하는구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가 와서 가르쳐 주렴!  
 남쪽 나라 친구여  
 그대는 알겠지!  
 봄이 어디에 있는지,  
 형제들이여!  
 우리도 희망찬 봄 맛이를 하자.  
 모든 형제들에게 영광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정옥란(62응미) 고문**

존경하고 친애하는 미대 동문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대 동창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문님들과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애써주신 권영걸 회장님과 임원진, 팀원들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병오년에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힘차게 도약하여 뜻하신 성과 모두 이루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동창회가 더욱더 발전하여 세계의 명문 동창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손문자(62응미) 고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들을 만납니다.  
 그 중 어떤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말은 마음에 꽂혀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잡기도 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반 고흐의 어록입니다.  
 "잘 닦아진 아스팔트 길은 걷기에는 편하지만, 그 위에서는 꽃이 자라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화초도 그렇습니다. 매일 물만 많이 주면 꽃이 피기는커녕 뿌리부터 썩는다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늘 편안한 길로만 인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말띠 해입니다. 말 역시 험한 길 보다는 평탄한 길을 좋아 하겠지요 하지만 아스팔트 길 위에 떨어뜨리는 말의 배설물은 아무리 기다려도 거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꽃은 흙에서 피고 거름은 밭에서 효력을 발휘 하듯 사람도 때로는 좁고 거친 길에서 크는 것 같습니다. 동문여러분 가슴속에도 인생을 끌고 온 어록들을 간직하고 계시겠지요.  
 말띠 해를 맞아, 말처럼 씩씩하게 두려움 없이, 좁은 길을 선택해 간다면 마침내 우리가 원하던 꽃을 환하게 피워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해 동창회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해가 거듭됨에 따라 특히 S-미술아카데미가 파리의 그랑쇼미에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문 여러분 각 가정에 넘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회소식



S-미술아카데미 봄학기 수강생 모집

S-미술아카데미가 오는 3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주에 걸쳐 2026년도 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본회 산하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화 초·중급(강사 안성규) ▲DSLR·미러리스 사진클래스·촬영·편집·출력까지(강사 이필두) ▲프리페인팅: 유화, 아크릴화(강사 조명식) ▲기초 소묘 드로잉: 어반드로잉 인물창작(강사 김호준) ▲태블릿PC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강사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강사 박혜령)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창작(강사 조래원) ▲자유크로키: 누드(강사없음) ▲포토샵배우기: 기초부터 활용까지(강사 이영훈) 총 10개 강좌로 구성된다. 또한 ▲프레스코: 석회 벽화 템페라 원데이클래스(강사 선우향)가 오는 3월 21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강좌는 오랜 시간 실전 경험과 교육 경력을 쌓아온 모교 출신 강사들이 수강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개별 지도한다. 개인의 실력에 맞춘 실기와 이론수업을 병행하여, 수강생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한편, S-아카데미 겨울학기 미술실기강좌는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하여 2월 27일까지 총 8개의 강좌가 회원들의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https://www.snuarta.or.kr/>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2026 S-미술아카데미전



본회는 2026 S-미술아카데미전을 오는 4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백악미술관 3층 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 전시는 본회가 주최하고 본회 산하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한다. 지난 '2025 S-미술아카데미전'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이번 전시는 S-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실기 수업을 통해 제작한 작품들을 정식 갤러리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4년 3월 개강 이후 첫 수업을 수강한 학생부터 전시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참가 신청 순서에 따라 전시 참여가 결정된다. 수강생들은 실기와

이론 수업을 병행하며 작품 제작 역량을 키워왔으며, 이번 전시는 그 결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S-아카데미 측은 "실기실에서 열정을 담아 제작한 작품들을 갤러리에서 정식으로 선보임으로써 수강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조명하고, 서로의 창작 여정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전시와 마찬가지로 수강생 작품과 함께 수업을 담당 강사진의 작품도 나란히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실기실에서 열정을 담아 제작한 작품들을 갤러리라는 정식 전시 공간에서 선보임으로써 수강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조명하고, 서로의 창작 여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회장동정



2026년 세종연구원 주요업무계획 간담회 개최

본회 권영걸(세종연구원장) 회장은 지난 1월 9일 박연문화관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회장은 "2026년 세종연구원이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정책 기여도를 성과로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연구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본회 권영걸(세종연구원장) 회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책문화센터에서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세종연구원은 맞춤형 장학사업에 선발된 524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총 약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권회장은 "장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 숨은 예술가들

본회는 오는 4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백악미술관 3층에서 '2026 숨은 예술가들'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숨은 예술가들'은 미술대학 외 타 단과대학 출신 서울대 동문들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대외적으로 선보이는 전시다.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예술적 열정을 품고 창작 활동을 이어온 동문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무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참가 동문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독자적인 예술적 표현을 공개하고,

동문 간 깊은 예술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미술대학 동창회는 역량이 뛰어난 참여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해 향후 전시 및 다양한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전시 참여에 그치지 않고, 동문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전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동문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조명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의학, 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은 각자의 삶의 경험과 전문 분야의 시각을 작품에 녹여내며, 이는 전문 작가들과는 또 다른 신선한 예술적 관점을 제시한다. 본회는 이 전시를 통해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학 동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예술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대 동문 중 재학생과 미대 동문을 제외한 기존 '숨은 예술가들' 참가자 또는 참가자 추천을 받은 동문이다. 출품 작품은 회화, 사진 등 평면 작품과 조각, 공예 등 입체 작품 중 1인 1점이며, 평면은 폭 90cm×높이 150cm 이내, 입체는 폭 50cm×깊이 50cm×높이 100cm 이내로 규격이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문자(010-8605-8065)로 접수하며, 전시장 여건상 신청순으로 마감된다. 개막행사는 4월 9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모교소식



모교 2025년도 2학기 과제전

모교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교 49동, 50동, 51동, 52동, 74동 전체에서 '2025학년도 2학기 미술대학 과제전'을 개최했다. 동양화과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 서양화과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 조소과는 12월 10일부터 12일, 금속공예전공은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과제전을 진행했으며, 도자공예전공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판매전으로 과제전을 대신했다. 디자인과는 1차 12월 11일부터 13일, 2차 12월 15일부터 17일, 3차 12월 19일부터 21로 총 세 차례에 나누어 49동에서 개최했다. 1학년 공통 과제전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신진작가 특별전 <땅, 없는, 시간>



모교 협동과정 미술경영 대학원생들이 공동 기획한 신진작가 특별전 《땅, 없는, 시간 (Ground/Less/Time)》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렸다. 모교에서 주최하고 모교 협동과정 미술경영에서 주관한 이번 전시는 'SNU 10-10 프로젝트' 및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모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한 신진작가 10명을 초대해 약 17일간 진행됐다. 참여작가는 권영재, 기하은, 김병진, 김우경, 김윤지, 김준환, 안혜민, 우수빈, 이단, 허아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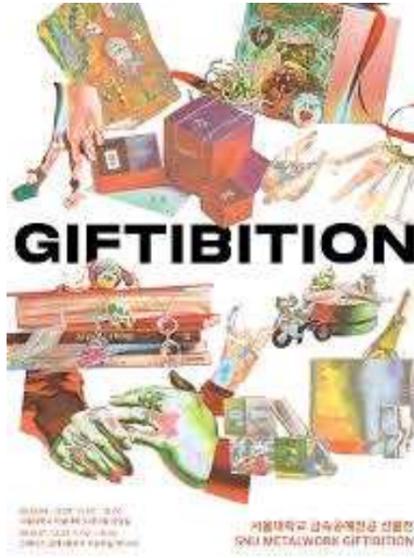
이며, 전시는 분절과 접합의 구조를 바탕으로 신체와 장소, 미래와 과거, 기억과 상상이 서로 얽히고 자리를 바꾸는 과정을 따라가며, 고정된 '땅'이나 선형적인 '시간'이 아닌 우리가 마주하며 경험하는 시간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전시기간 중에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지리학자 김이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강연 '지리학과 예술의 만남: 군산과 서울을 사유하는 시간-장소-흔적'을 시작으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호추니엔의 온라인 강연 '환영(幻影)',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오희숙 교수의 '시간의 창조 - 음악적 시간성과 그 예술적 확장', 영화 촬영감독 박영준의 '영화의 시간성에 대하여 - 렌즈, 시간을 조각하다' 강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요가 안내자 한진영이 진행하는 명상 워크숍 '명상과 집중의 생산'으로 전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전시는 임수영이 기획을 총괄했으며, 강효경, 금다듬, 박세연, 서선영, 오지은, 유세희, 이승민, 조인섭, 최현호가 기획에 참여했다. 한편, 전시에 맞춰 참여작가와 매칭 큐레이터의 대화를 담은 도록 『땅, 없는, 시간』(서울: 밤과 호두, 2025)도 출간되어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동양화과 가일전통안료 워크숍



동양화과는 지난해 12월 23일 전통안료에 대한 학습 및 석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경기도 양평 소재의 가일전통안료를 방문하여 진행됐다. 행사에는 모교 동양화과 김성희 교수, 김형숙 교수, 최석원 교수 및 강사와 동양화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함께했다.

금속공예전공 선물전 <Giftibition>



지난해 12월 4일부터 7일, 17일부터 23일까지 2025 모교 금속공예전공 선물전 'GIFTIBITION'이 열렸다. 전시는 모교 금속공예과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만드는 판매 전시였다. 대성재료상사, 창신부식, T1주물, 뿌띠도금, 현대아크릴, 아림주물, 대진재료상사, 대신주물, 은세계, 삼성사 등에서 전시를 위한 후원이 이어졌다. 4일부터 7일까지의 교내 전시는 사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작업장에서 진행됐고,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교외 전시는 연말의 설렘이 가득한 서순라길 스페이스 금채에서 진행됐다. 특히 교내에서 진행되었던 전시는 금속공예전공 학부 졸업전시와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전시로 꾸러졌다. 전시에 앞서 SNS를 통해 참여 작가들의 작은 작품을 나누는 이벤트도 열려 전시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석갤러리



김명은개인전 <수심>

우석갤러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3일까지 김명은(17동양) 동문의 개인전 <수심>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문이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제작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서울미술고등학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기를 마치며



안녕하세요, 제40대 미술대학 학생회장 조민경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1일 취임사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 안에 뒤섞여 있던 설렘과 걱정, 기대와 막막함은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며 감사와 아쉬움, 그리고 배움으로 남았습니다. [노트]는 회칙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코로나와 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느슨해졌던 학생사회를 다시 이어 붙이고자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생회와 함께해 주신 학우 여러분과 각 과 학생회, 집행부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더라도, 한 걸음 나아간 미술대학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지난 1년은 여러분이 남겨 주신 낙서와 밑줄, 수많은 스케치가 쌓여온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행보가 다음 학생회가 참고할 수 있는 스케치이자 기록이 되었기를 바라며 [노트]는 여기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12월 부터는 다음 학생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미술대학 학생사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께서 학생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학기와 작업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노트]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미대동창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40대 미술대학 학생회 [노트] 학생회장 조민경

## 신년사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질주하는 말의 기상을 품고, 활력과 행복 가득한 한 해를 열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출범한 서울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80년의 역사를 성찰하며, 개교 100주년의 서울대학교의 모습을 함께 설계하고, 그 미래를 향해 근본적인 질문에 도전하는 용기와 변화를 이끄는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야 합니다.

1946년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시대와 국가 사회가 요청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1975년에 이르러서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종합화 이후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당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법인화를 이룸으로써 자율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공동체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힘든 과정을 감내하고 오늘의 서울대학교를 이룩한 서울대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3년 전 “복합적인 도전에 담대히 응하여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서울대학교 총장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 플랫폼으로서 첨단융합학부와 학부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화 50주년의 의미를 담은 ‘경계를 넘어 세계로(Beyond Boundaries and to the World)’라는 비전 체계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교육과 연구의 혁신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미래 세대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하는 배움과 경험의 터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도 교육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의 노력을 이어갑니다. 공통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핵심역량 기반 교과목 운영을 강화하고, 삶 속의 배움을 실천하는 ‘LnL(Living & Learning)’과 ‘Open LnL’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캠퍼스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류와 소통 공간인 ‘SNU Commons’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시작된 문화관 재건축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학생회관 리모델링과 함께 행정관 1층과 주변 공간의 재구성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교육혁신의 기반 위에 미래 세대의 필수 역량인 AI 활용 능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AI Native 캠퍼스’를 목표로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캠퍼스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교육과 연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AI 대학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현재 학내의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연구 분야에서는 ‘질문 기반 연구대학’을 목표로 ‘SNU 그랜드 퀘스트(Grand Quest)’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와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도전적 질문을 발굴하여 이를 연구과제로 지원할 것입니다. 과학·기술뿐 아니라 인문·사회·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해석을 결합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진흥해 나가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하여 서울대만의 고유한 연구 브랜드를 확립하고, 대학의 국제적 위상과 연구 분야에서의 선도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대학의 중요한 변화 중 또 하나는 국제화의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국제화는 대학의 부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모든 일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우리 대학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공헌·행정 전 분야에서의 국제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출범한 국제처는 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 국제화의 추진 체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센터(International Scholar and Student Services) 신설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대의 수월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를 연결하는 고등교육과 연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 공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성과중시 연봉제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큰 강물은 조용히 흐르지만 물길을 바꿉니다. 시대적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근본적 가치를 지키며 거시적 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80년의 서울대학교 역사와 인류의 긴 배움과 탐구의 역사에서 미래를 개척해 온 인간의 용기와 지혜, 의지를 발견합니다. 대학은 이러한 가치와 덕목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고 키워감으로써 당면한 난제와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문공동체’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발휘합시다.

2026년, 서울대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굳은 다짐과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보람을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유흥림

## 서울대소식



### 2025학년도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 시상식

서울대 유흥림 총장은 지난해 12월 8일 ‘2025학년도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국내외 학문발전에 기여한 교수 10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대학교는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서울대학교 교육상’과 통합하여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연구부문, 교육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 제14회 아시아대학포럼

서울대 유흥림 총장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서울대와 태국 탐마삿대(Thammasat University)가 공동 주최한 제14회 아시아 대학포럼(Asian Universities Forum, AUF)에 참석했다. 아시아대학포럼은 2011년 서울대를 중심으로 아시아 15개국 25개 대학이 참여하여 설립된 대학 협의체로, 매년 각 회원교의 총장·부총장급 대표를 초청하는 연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대는 국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한 개의 회원교와 협력하여 포럼을 공동 주최해 왔다.

신년사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각자의 삶과 일터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우리 모교와 총동창회에도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946년 국난의 폐허 속에서 나라

의 미래를 일구기 위한 교육과 학문의 터전으로 출발한 모교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과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80년의 역사는 단지 모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길을 내 온 수많은 동문들의 삶과 발자취가 모여 이룬 공동의 역사입니다.

총동창회 또한 지난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동문과 재학생 2천여 명이 하나가 된 홈커밍 대회는 세대 간 교류와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바둑대회를 비롯한 연중 행사, 나눔 가족 음악회와 나눔 골프대회, 국토문화기행 등은 동문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네팔과 제주에서 진행된 글로벌 사회공헌단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서울대인의 정신을 사회 속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장학재단 관악회가 작년에 1,400여 재학생들에게 역대 최대인 4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동문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입니다.

올해 총동창회는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개최될 80주년 홈커밍 대회를 비롯해, 동문 자녀 대상 모교 탐방·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모교 지원 확대 등 서울대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80년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는 3월 말, 회장으로서의 저의 두 번째 2년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즐거운 동창회 보람찬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총동창회장을 맡아 왔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가 연결될 때 공동체는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신념으로, 동문 간의 교류를 확장하고 동문 쇼핑몰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응원이 있었기에 총동창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새로운 회장단이 총동창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단과대학, 특별과정, 해외 동창회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모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지식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기를 마친 후에도 동문 한 사람으로서 총동창회의 발전을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김종섭

총동창회 소식



제182차 상임위원회 개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받고,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원 27명이 참석하고 57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성원이 성립됐다. 김종섭(66사회사업)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 회장 인선이 진행 중"이라며 "동창회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에 두고 활동해 온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송우엽(79체육교육) 사무총장은 정기총회, 홈커밍데이 등 2025년도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했으며 사회공헌·장학 사업 실적도 공유됐다. 2026년도 사업계획은 개교 80주년을 축으로 구성됐다. 오는 1월 29일 신년 인사회, 3월 상임위원회와 정기총회·관악대상 시상식을 열고, 국토문화기행은 연 4회로 확대한다. 나눔 음악회(5월 14일), 나눔 골프대회, 등산 트레킹(6-11월), 동문 바둑대회(7월 5일), 관악논문인회, 10월 18일 개교 80주년 홈커밍 대회가 예정돼 있다. 동문 자녀 대상 모교 탐방·멘토링 프로그램도 새롭게 신설된다.

박경준 성악가 수요특강

지난해 12월 3일 마포구 SNU장학빌딩에서 열린 수요특강에서 세계적 바리톤이자 국내 최초의 '오페라 인문학자'로 알려진 박경준 동문을 초청해 '오페라 인문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음에도 행

사는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 70여 명의 동문들로 가득 찼다. 박동문은 "오페라는 음악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예술이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정치와 제도, 사상과 권력을 가장 정교하게 숨겨놓은 텍스트"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의 중심은 모차르트의 대표작 '피가로의 결혼'으로, 그는 이 작품이 희극적 줄거리에 머무르지 않고 당대의 불평등·귀족제의 모순·인권 의식의 성장 등을 품은 '혁명 서곡'이라는 점을 밝혔다.

체육인의 밤 2000만원 지원



제13회 '서울대 체육인의 밤'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총동창회는 모범운동부원 9명에게 각 200만원, 최우수운동부에 2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총동창회장배 전국대학여자 축구대회 1000만원, 전국대학남녀배구대회 500만원도 지원했다.

2월 수요특강

-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강 연 자 : 공훈의(고도화 사회 이니셔티브 대표)
- 주 제 : 누구나 앱을 만드는 시대 -AI 에이전트 시대의 새로운 상식
- 신청방법
  - 참가신청 [행사명,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2만원) 입금
  - 문자(전화불가)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 기재 (예\_홍길동2월수요)
  - \*1월 27일(화) 이후 신청 취소 시, 참가비 환불 불가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025.12.17.-2026.1.15)

- 이 사 회 비 장준혁(90조소) 추명희(70조소)
- 일 반 회 비 조윤준(17시디)
- 광고후원금 김소선(63조소) 30만원 박덕실(81서양) 20만원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 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 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신 회원(연회비 납부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변용국(81회화) 본인상



변용국 동문이 지난해 12월 12일 별세했다. 모교 및 동 대학원 졸업 후 뉴욕 Pratt Institute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고인은 30년 전 도미한 이래, 미국 시카고와 한국을 오가며 활발히 작업을 이어왔다. 점을 반복적으로 찍는 미니멀한 기법을 통해 소수자로서의 삶의 성찰과 명상적인 색면 추상 세계를 구현하는 현대미술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영은미술관 변용국 동문의 스튜디오(A-1)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 2층

\*문의 02-877-8065

\* 평일 10~17시

2026 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3.9 ~ 5.29 \*공휴일 휴강 (보강 진행)

월	화	수	목	금	ONE DAY CLASS	
오전 10:00 - 13:00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 인물창작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고급과정 조명식	유화 초·중급 안성규	현대 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 창작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3.21(토) 10:00-17:00  프레스코 석회벽화 템페라  선우향
오후 14:00 - 17:00	자유 크로키 누드 강사 없음	포토샵 배우기 기초부터 활용까지 이영훈	DSLR·미러리스 사진 클래스 촬영·편집·출력까지 이필두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접수 기간  
2026.2.2(월)~2.25(수)

접수 방법  
접수: 010-8605-8065 문자  
입금: 301-0252-4434-51농협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 정원  
강좌별 15명  
\* 신청순 접수 / 복수신청 가능  
\*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수강료 36만원 (12회)  
유화 45만원 (15회)  
자유크로키 20만원 (10회)  
\* 모델료 별도  
프레스코 15만원 (1회)  
\* 재료비 포함

환불 규정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은관 문화훈장 수상 유희영(58회화)**

유희영 동문이 올해 '문화훈장' 은관을 수상했다. 문화훈장은 정부포상의 최고 훈격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격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유동문을 포함해 김화영, 한태숙, 조성룡 등 4명이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유동문은 대한민국 예술회 회원으로서 평생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색면추상'이라는 독창적인 양식을 구축하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차관은 "문체부는 한국문화의 근간인 문학과 음악, 공연, 미술 등 문화예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술인 성장 지원 등 한국문화예술의 지속 발전을 제도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유동문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학장을 역임했다.

**아트코리아방송 문화예술대상 수상 손문자(62응미)**

손문자 동문이 2025 제5회 아트코리아방송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주최측 (주)아트코리아방송과 아트코리아문화예술협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인들의 만남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창작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도전을 응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사에는 김종근 미술평론가, 홍가이 철학박사,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김문기 교수, 이승은 교수가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예술적 완성도와 창작의



독창성은 물론, 해당 활동이 사회와 문화 전반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공공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 온 점 역시 주요 심사 기준으로 반영됐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다. 80년대부터 꽃을 주된 소재로 삼아 작업을 지속했다. 1994~1995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2025 충남미술관 아트포럼 참여 심상용(81회화)**

지난해 11월 27일 충남도가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충남미술관 아트포럼'을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공존하는 예술: 미술관의 새로운 상상력'을 주제로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상황에서 특성화 전략과 차별화된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술 분야별 전문가, 지역 예술인, 도민,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 상영, 발제, 종합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심상용 동문은 2부에서 '예술과 생태의 공



진화를 위한 미술 전시 및 콘텐츠 기획의 이론과 방법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심동문은 이후 파리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파리 1대학 미술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속도의 예술', '현대미술의 욕망과 상실' 등의 저서가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수원디자인대상 수상 전보림(93조소)**

전보림 동문이 공동대표로 있는 (주)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원더풀 우만'이 지난해 10월 수원도시건축문화제 수원디자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해 10월 30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원더풀 우만'은 4층 규모의 상가주택으로, 1-2층은 상업공간, 3-4층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의 붉은 벽돌 외장과 폴딩도어가 기존 도시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실내 수영장과 테라스를 통해 사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수영장은 건물 구조의 핵심 부재로 설계되어 기능성과 미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전동문과



이승환 대표는 '2019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전동문은 서울대학교에서 조소와 건축을 전공했으며 M.A.R.U에서 실무를 익혔다. 2009년 런던으로 이주하여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에서 Master of Arts 과정을 마치고 2014년 귀국하여 이승환 대표와 함께 아이디알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다. 2017년 첫 준공작인 매곡도서관으로 신진건축사대상,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모교에서 설계 스튜디오 수업을 담당했으며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파리 시테레지던시 입주작가 선정 한재석(10조소)**

한재석 동문이 삼성문화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 파리 시테 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한동문을 비롯해 임영주 작가도 입주 작가로 선정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회화, 조각,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연구자 총 237명이 지원해 역대 최대 지원자 수를 기록했다. 입주자 선정은 포트폴리오와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한 1, 2차 심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기존 작업의 독창성과 예술적 깊이, 파리 레지던시를 통한 작업 확장 가능성, 입주 기간 중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 파리



현지 기관 및 작가들과의 교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삼성문화재단은 선발된 입주 작가들에게 항공료, 체재비, 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한동문은 2026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입주해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음향 장치를 기반으로 '되먹임' 현상에 주목한 사운드 설치와 퍼포먼스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14년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2020년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사운드과 석사를 마쳤다.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전에 죽겠다 싶었다' 출간 최이슬(14서양)**

최이슬 동문이 에세이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전에 죽겠다 싶었다'를 지난해 8월 출간했다. 책에는 예고, 서울대, 창업까지 인생 전반을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희귀병 진단을 받은 후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여정이 담겨 있다. 흔히 고액 연봉, 반듯하고 유명한 직장, 높은 학력, 갓생, 그리고 미라클 모닝과 같이 사회적 성공과 행복으로 굳어져 온 것들에 의문을 품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인생 로드맵을 다시 세우게끔 돕는다. 한편



최동문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와 벤처경영학을 전공했다. 5개의 직무와 창업을 경험하며 정형화된 성공방정식에 의문을 품었다. '나다운 삶'에 관한 고민들과 질문들을 SNS에 올렸고, 누적 3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나아가 개인의 고유함에 대한 집요한 관심으로 '나다운랩'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함을 지켜내도록 자기 이해와 존중이 스며드는 일상을 탐구하며 살아간다.

## 평행 우주를 품은 풍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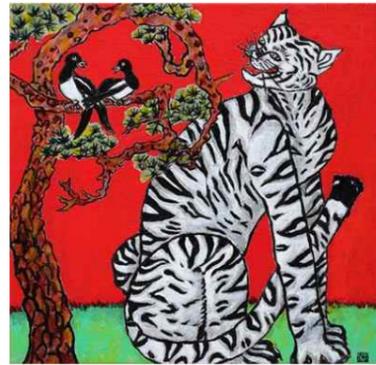
김소선(63주소)



김소선 동문의 개인전 '평행 우주를 품은 풍경화'가 오는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갤러리 내일에서 열린다. 서길현 미술비평가는 김소선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소선의 작품은 평행 우주처럼 약간씩 어긋나는 미세한 차이를 통해 다층적으로 펼쳐지는 순수한 세계를 지향한다. 이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현실의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또 다른 질서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의 그림은 딱딱하게 경직된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동물들을 통해 이러한 상상적이고 자유로운 세계를 그려낸다. 그녀의 연작에서 등장하는 호랑이와 '베키'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는 이러한 자유로운 정신을 대변하며, 따분한 규칙의 경계를 넘어 새롭게 펼쳐진 우주로의 모험을 떠난다. 이 여정은 평행 우주처럼 여러 복수의 공간이 복합적으로 겹쳐있는 세계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기존 세계는 반복되지만, 미세하게 어긋난 변주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블랙홀은 이러한 평행 우주를 연결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블랙홀은 기존의 질서를 초월해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로 제시되며, 그곳 중의 하나에 들어가 앉아 명상하는 호랑이는 우주로 시야를 확장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이기도 하며, 관객에게 새로운 체험과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앨리스가 부조리한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김소선의 작품에서 동물들은 단순한 객체로서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을 안내하는 주체적인 동반자이다. 이들은 기존 질서와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유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녀는 이러한 전복적인 동물의 여정을 통해 관객을 유희적이고 상

상적인 세계로 초대하며, 현실을 초월한 독창적 공간을 제시한다. 그녀는 해마다 특정 동물을 주제로 작업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해를 상징하는 동물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해체하고 확장하여 재구성한다. (중략) 김소선의 평행 우주는 광활한 코스모스로서의 거시적 우주뿐만 아니라, 양귀비 꽃잎의 순수한 붉은 색깔 속에 겹겹이 드러난 공간이나, 벌레가 먹어버려 잎맥만 남은 나뭇잎을 통해 드러나는 미시적 공간에서도 발견된다. 그녀의 상상적 우주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제한된 화면 속 공간을 무한히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2019년 발표한 '버블우주' 시리즈에서의 거품 방울에 맺힌 무수한 허상처럼 수많은 복수의 우주로 증폭됨으로써 평행 우주의 개념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세계는 고양이나 호랑이의 눈 속에 끝없이 펼쳐진 열린 공간으로도 묘사되어 관객에게 무한한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간다. 이와 같이, 김소선의 작품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이미지를 통해 고정된 현실을 넘어선 상상적이고 유희적인 세계를 제시한다. 그림으로써 그녀의 평행 우주는 관객에게 기존 질서를 벗어난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며, 상상적 우주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창의적인 '우주-풍경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김소선은 갤러리 내일(2022, 2023, 2024),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2008), 노르웨이 베르겐국립박물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일본 미키모토 진주도박물관, 멕시코 페멕스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제1회 광주도자엑스포(2000) 홍보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가천대학교 사회교육원 위촉교수를 역임했다.



# 김소선 초대전

평행 우주를 품은 풍경화

2026. 1. 16  
~ 1. 28

갤러리 내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B2  
02)391.5458

Open 11am - 6pm

\*월요일 휴관

동문인터뷰

이순중(70응미) 디자인학부 명예교수



제10대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헌액 소감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은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발전에 공헌한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디자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디자이너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인물 중 관련 단체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헌액되며, 지금까지 김교만, 민철홍, 조영제 선생님 등 제10대에 걸쳐 총 19명의 디자이너가 헌액되었다. 미려한 본인을 추천, 선정 함에 감사드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디자인의 바른 길을 걸으면서, 디자인분야에 더욱 애정을 기우려야 할 것 같다.

디자인전공 선택 계기

미술부는 중학교부터 하였지만, 인천고 재학 시 농대에서 농업경영을 배워, 집안과 농촌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진로를 생각했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 대미대 응용미술과 출신의 미술선생님(이윤성)이 ‘너는 미술에 재주가 있고 공부도 잘해 서울미대도 갈 수 있을 터인데 왜 하필 농대냐? 앞으로 미대 응미과는 전망이 밝아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을 것이니 거기를 목표로 하여라’며 미술대학을 권하셨다. 고교 미술선생님의 멘토링이 디자인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리노이공과대학에서 경험한 디자인교육 중 인상 깊었던 점

일리노이공과대학교 디자인대학(Institute of Design, IIT)은 뉴 바우하우스의 후신으로, 제품·서비스·시스템디자인과 기술·과학·예술이 융합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였다. 디자인을 소프트한 콘텐츠와 하드한 기술·조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문제해결로, 나아가 디자인을 제품과 산업발전을 넘어 도시·사회시스템을 혁신하는 역할로 보는 폭넓은 디자인관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관찰-분석-문제정의-해결안-시각화-전달’로 이어지는 매우 체계적인 디자인방법론과 프로세스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실기 디자인의 주제는 정부·기업 등의 실재적인 문제를 미래지향적인 해결로 이끌어내는 산학이 대부분이었고, 심도 있는 해결안을 위하여 팀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디자인교육방법은 훗날 본인의 교육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교육자디자이너(사회활동가)로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활동 및 경험

2009년에 디자인의 창조적 리더십 교육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디자인학부, 경영대, 공대 기계공학부가 협력하는 다학제 ‘통합창의디자인 연계전공’을 연구하여 개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곧 이어, 전국의 디자인대학들이 다학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모형을 되었다. 2005년에는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초대 총감독을 맡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디자인비엔날레의 비전제시와 함께, 전시(관찰), 컨퍼런스(느낌), 워크숍(배움), 이벤트(즐김) 등의 프로그램 구조를 구축하였다. 비엔날레는 50일간 30만명의 국내외 관객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 국민대 재직 시에는 경찰청에서 의뢰한 ‘경찰제복연구’에 의상학과 이재정, 강병석 교수와 함께 본인은 기획·연구·전략 디자인부문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사를 거쳐

‘품격 증진’을 디자인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넥타이와 청색와이셔츠 착용안이 선정되었다. 경찰과 시민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경찰제복은 패션과 디자인전략 협업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2026년 앞으로의 계획



인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 건물 등 모든 인위적인 창조물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의 80%는 디자인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이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인간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디자인 활동·운동은 본인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또한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사)자문박문화포럼(2013년 설립)에서는 500여명의 예술가·회원들과 함께 예술축제, 청년레지던시, 예술교육,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예술·디자인이 지역 삶과 사회에 공헌하고, 창의적인 예술마을의 모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7년에는 예술, 디자인과 지역사회 연결의 플랫폼인 ‘국제예술레지던시’ 건물을 건립 추진 중이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

최근 들어 후배 디자이너들의 재능과 활약이 돋보인다. 바램은 이러한 우수한 재능이 산업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의 영역을 산업과 도시는 물론 교육, 행정, 사회, 관광, 환경 등 모든 삶·사회·환경의 문제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디자인 미래를 이끌어 갈 중차대한 디자인정책의 연구·활동 등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동창회와 동문들에게 한마디

현재 미대동창회는 동문들 간에 유대강화, 모교·후배 지원,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매우 잘하고 있어 감사드린다. 혹 덧붙인다면, 취업이나 창업, 예술문화활동 등을 동문 상호간에 연결시켜 도움을 주거나, 홈커밍데이 같은 동문 간의 연대강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다. 동문들도 숫자가 적은 만큼, 상호 발전을 위한 동문들 간의 협력과 상생의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동문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이순중전(展) : ‘굿 라이프’(누크갤러리)를 개최하였다. 이동문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 건물 등 모든 창조물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80%가 디자인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디자인은 사회 혁신의 도구임을 주목했다. 전시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인 음식을 담는 식기를 생산·사용·세척·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시간·소모 등의 문제점을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료, 물, 공간 등의 자원 절감을 통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려 하였다. 전시회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디자인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재생’과 ‘자연모방’을 주제로 한 조명 작품도 전시되었다.

이동문은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 및 학장,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자문박문화포럼 이사장, 국립디자인박물관개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인(詩人) 산정 서세옥(1929-2020/46회화)**

산정 서세옥 동문의 5주기 추모전 '시인(詩人) 산정'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수묵추상의 거장으로 평생 '사람'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천착해 온 서동문의 예술세계를 조망해 본 전시다. 전시에는 그가 직접 쓴 한시들과 그림들이 소개됐다. 그의 작품에 담긴 화론을 비교하면서 그가 화가이면서 동시에 사상가이자 시인으로도 일가를 이룬 예술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동문이 추구했던 예술관은 무극의 세계로 초월과 무한, 순환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道'의 에너지다. 소은 그런 세계 안에 내재해 있다. 그는 이러한 세

계관을 간결하고 응축된 형상을 통해 표현해냈다. 그의 그림이 운필과 먹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품고 있다면 그의 시는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그림에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의 기획을 맡은 이유선 학예사는 "문여기인(文如基人), 즉 글은 그 사람과 같다고 한다. 글 속에는 저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상이 드러난다. 문학에서 말하는 기상론(氣象論)이란 바로 그가 만든 예술작품 속에 품격을 비롯하여 사유와 기운이 응축되어 형상으로 나타남을 일컫는다. (중략) 직접 쓴 한시 속에서 그가 추구했던 가치, 애완했던 기물과 전각, 음악과 같은 취미를 언급하며 마치 고전 속 문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실제로 산정은 문기(文氣)는 저 광대 무한한 우주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에너지라고 하여 문인화 전통이 지닌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였다."라며 전시의도를 밝혔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1949년 제 1회 국전 국무총리상 수상, 1953년 제3회 국전 동양화부 최고상 수상, 2007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외 석재문화상, 일민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2012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1955년부터 모교 교수를 역임하여 한국화의 주축이 되는 후진들을 양성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휴스턴 미술관 등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또한 독립회 창립에 큰 기여를 하여 한국화의 현대화 및 추상화를 이끌었다.

**김종학, 설악산의 화가 김종학(56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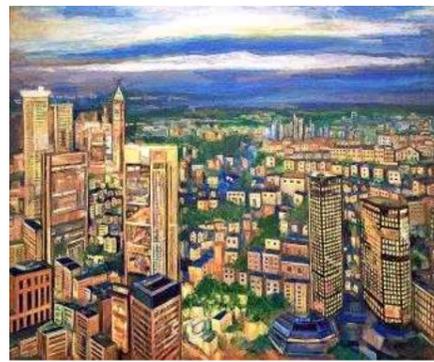
김종학 동문의 개인전 '김종학, 설악산의 화가'가 지난해 4월 11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하이 뮤지엄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1970년대 후반,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에 정착해 그곳에서 표현적 화풍을 추구하며 대안적인 예술 담론을 모색했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미술에서 산수의 표현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1970년대와 1980년대 신표현주의 및 기타 구상 회화 경향과 같은 국제적 사조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도쿄예술대학, 프랫인스티튜트



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갤러리현대, 가나아트센터,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열었다. 1967년 제5회 도쿄국제판화비엔날레 장려상, 2001년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다.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모교 교수를 역임했다.

**오, 미라빌레! O, Mirabile 박덕실(81회화)**

박덕실 동문의 개인전 '오, 미라빌레!'가 오는 2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위치한 갤러리이즈에서 열린다. '오, 미라빌레'는 라틴어로 '오, 경이로움이여'라는 뜻이다. 박동문은 뉴욕을 방문하여 황혼을 목격했던 때를 회상했다. 맨하탄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포착한 그 때의 경험이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일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순간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큰 선물에 대한 찬가다. 프랑크푸르트의 활기찬 도시 풍경, 뢰머 광장의 모습,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풍경을 표



현한 작품들도 이번 전시에 포함됐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박동문은 나우리아트센터, 아트스페이스 쉼리아, 갤러리더웨이, 필름포럼갤러리, 현대백화점, 오스갤러리 등에서 16회의 개인전 및 초대전을 가졌다. 한울회전, SNU 빌라다르 페스티벌 등을 포함한 단체전 95여회에 참여했다. (주)제일가스, (사)하영 외 다수의 개인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후원광고

# 박덕실 개인전

## O, Mirabile!

오, 미라빌레!

### 2026.2.4 — 2.9

gallery is  
갤러리이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52-1 갤러리이즈 1F

T. 02. 736. 6669  
Open 10am - 7pm

**더 루프 채혜선(82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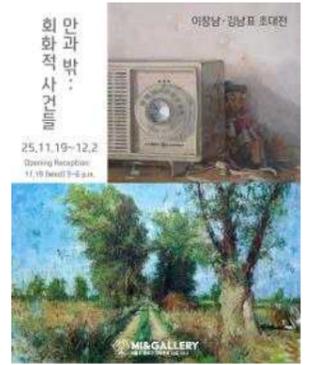
채혜선 동문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동 떼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 '더 루프'를 열었다. 채동문은 일상 속 반복적 행동과 그로 인해 남겨지는 감정적 잔여물을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매일 밤 하게되는 SNS 사용과 온라인 쇼핑을 '중독적 루프'로 바라본다. 세일 문구, 최신 트렌드, '필요한 구매'라는 명목 아래 이어진 클릭은 새벽마다 도착하는 상자로 이어진다. 잠깐의 만족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다. 채동문은 이 지점을



작업의 핵심으로 삼았다. 전시에 등장한 빈 박스, 스타벅스 슬리브 등을 활용한 콜라주 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보편적 문제인 '중독의 루프'를 드러낸다. 한편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채동문은 2016년 갤러리 이즈에서 연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한울회전, 빌라다르페스티벌을 비롯하여 경남국제아트페어, 부산국제아트페어 등 다수의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안과 밖: 회화적 사건들 이창남(85서양)·김남표(91서양)**

이창남 동문과 김남표 동문의 2인전 '안과 밖: 회화적 사건들'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MI&GALLERY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과 김동문은 각자의 방식으로 탐구한 회화를 선보였다. 이동문은 일상 속 사물들을 통해 그 안에 스며든 시간과 감정을 포착한다. 조용히 놓인 사물들은 내면의 풍경으로 향하고 있으며, 삶의 단면을 담고 있다. 그의 회화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삶의 깊이를 탐색하는 철학적 회화다. 한편 김동문은 작업의 흔적이 남은 팔레트를 하나의 회화로 제시하여 캔버스 안에 포함시키는 팔레트 시리



즈를 새롭게 선보였다. 팔레트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작업 과정의 흔적이 담긴 회화적 사건이다. 김동문의 시도는 회화가 단순히 그려진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졸업후 리안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다수 개최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가나아트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찬란한 그러면서 허망한 정상곤(83서양)**

정상곤 동문의 개인전 '찬란한 그러면서 허망한'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분당에 위치한 운중화랑에서 열렸다. 전시에는 정동문이 2년 동안 준비한 회화 작품 20여점이 공개됐다. 그동안 작업실 인근 대지산을 산책하며 접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 왔던 정동문은 특정 장소가 뿜어내는 현장감을 그림의 즉흥성으로 풀어내며 언어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순간들을 포착했다. 정동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변화와 영원의 모순'이다.



그는 이 모순이야말로 인간에게 중요한 생의 논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판화를 전공한 정동문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9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판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98년 에스토니아 탈린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1999년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국제판화 비엔날레, 2018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제판화 트리엔날레에서 그랑프리 수상했다.

**이민주 초대전 이민주(76회화)**

이민주 동문의 제63회 개인전이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갤러리 내일에서 열린다. 병오년을 맞아 사유하는 말과 긍정적 에너지를 담아 낸 작품들이 공의 공명이라는 주제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됐다. 서길현 비평가는 "소외의 공간에서 길어 올리는 신화의 공명이며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은 외형보다 그 형용을 이루는 주름선이 만들어가는 파장의 시각적인 강도이다. 이러한 선으로 이루어진 대상들은 침묵의 시선을 통해 텅 빈 듯한 화면에서 고요한 파동을 생성하여 소외로 굳어진 현대인의 감각을 깨어나게 하여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시선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고 말했다. 프레스코작품들은 21년 땅속에서 숙성된 재료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모교 및 고려대, 경희대 및 대학원 등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20대 한국미협 부이사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광주비엔날레, 전남수목비엔날레, 방글라데쉬 비엔날레, 칭따오 비엔날레 등 칠백여회의 전시에 참가했다.

**이민주** 空의 共鳴 **The Resonance of the Void IV**  
 소외의 공간에서 길어 올리는 신화의 공명

2026.1.30 金 — 2.13 金

내일 갤러리 내일 \*월요일 휴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02)2287 2399

**농담 채현교(90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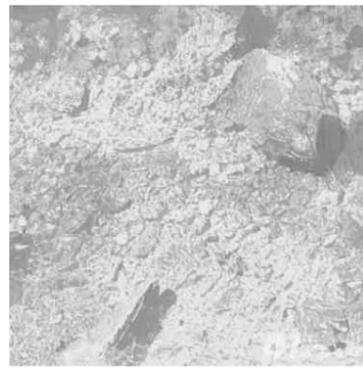
채현교 동문의 초대전 '농담'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갤러리 내일에서 열렸다. 전시 제목 '농담'은 그림의 농담(濃淡), 언어적 농담(弄談)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그는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간 경험 이후, 삶을 향한 무게가 달라졌고, 우연히 읽은 밀란 쿤데라의 소설 '농담'이 남긴 인상이 작업 방향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 단어가 지닌 깊이와 무게를 색의 농담으로 치환하며, 화면 속에 담긴 의미가 번져 나가는 과정을 탐구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분홍, 노랑, 초록, 보라, 주황 등 다채로운 색감이 화면 위에서



진화하듯 흐르는 작품들 이었다. 산호초와 해조류가 푸른 바다 위에서 꿈처럼 떠오르고 사라지며,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판타지를 구성했다. 크리스탈 재료를 활용해 물빛의 반짝임을 더한 화면은 관람자에게 시각적 쾌감을 제공했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채동문은 관훈갤러리, 온리갤러리, 이이안아트스페이스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가천대학교 길병원, 대전 고등검찰청사 등에 작품이 소장 돼 있다.

**끝없는 세계 정용국(91동양)**

정용국 동문의 개인전 '끝없는 세계'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년 1월 18일까지 스페이스윌링앤딜링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전통 동양화를 기반으로 공간과 매체의 확장을 탐구해 온 작가로, 최근에는 종이와 먹 중심의 자연의 변화를 회화적 언어로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흐르는 물, 구름, 숲, 바위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장면을 먹과 물의 층위로 포착했다. 실제 풍경과 허구적 구성이 교차하는 화면은 관람자의 인식을 흔들며, 동양화가 지닌 '마음을 드러내는 시선'이라는 태도를 현대적으로 확장한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서울대학교미술관 학예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스튜디오 4기 장기입주작가를 거쳐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목', '더소름', 'Anywhere', '빈들에 서다' 등 14여회 이상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5년 제27회 중앙미술대전에 선정됐고, 2005년 제5회 송은미술대전 미술상을 수상했다.

**Under the Heavens 정현영(93서양)**

정현영 동문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개인전 'Under the Heavens'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정동문의 대표 회화 작품과 설치 작업, 사생 드로잉과 수채화를 포함한 40여 점의 작품이 선보여졌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존재의 흔적을 포착하며, '다름 속의 공존'과 '조화'를 중심 주제로 지속적인 작업 세계를 펼쳐왔다. 최근에는 먹 드로잉을 콜라주한 화면 위에 색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서양화와 한국화의 표현적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



시는 특히 '장소성'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땅의 역사, 시간과 연결된 공간의 기억과 감각을 작품에 담았다. 정동문은 "땅이 간직한 세월에는 지으신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고, 땅이 지닌 흔적에는 살아간 사람들의 자취가 남아있다"며 "내 눈을 사로잡아 이끄는 땅 곳곳의 아픔과 아름다움 속에 숨 쉬는 하늘의 생명의 빛을 그린다"고 평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드라마 서상익(97서양)·윤미류(석16서양)**

서상익, 윤미류 동문과 서동욱 작가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열리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기획전 '드라마'에 참여한다. 전시는 회화 속 인물이 어떻게 서사를 형성하며, 감정과 관계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한다. 서동문, 윤동문, 서동욱 이 세 명의 작가는 자신의 그림 속 인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정한다. 서동문은 한 걸음 떨어진 시점에서 인물과 구조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의 회화는 인물들을 화면 구성의 일부로서



배치하고 관계의 긴장을 드러내는 요소로 기능하게 한다. 윤동문은 이야기가 생기기 이전, 존재의 기원을 만든다. 그는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창작하는 방식으로 회화를 구축한다. 화면 속 인물은 삶의 장면에서 우연히 발견된 존재가 아니라, 서사가 개입되기 전부터 이미 어떤 역할과 조건을 부여받는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파고 이은실(아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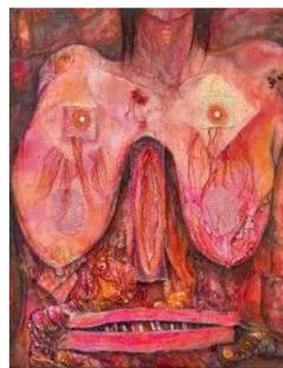
이은실 동문의 개인전 '파고'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이동문은 첫 출산의 경험을 작업으로 풀어 내겠다는 계획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다. 스스로의 삶에 있어 강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기에 얼마간 거리를 유지하고 충분한 세월을 지나 이번 전시를 꾸리게 됐다. 전시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사건 앞에 불완전한 인간 존재가 겪어내는 감정의 높낮이를 보다 섬세하게 포착하는 시도이다. 개인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변곡점을 파도의 높이에 비유하는 전시명 아래, 동양화



기법으로 제작한 총 10점의 신작 회화를 1층과 지하 1층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코크스트리트, P21, 유아아트스페이스, 두산갤러리 뉴욕, 창강빌딩 1003호, 프로젝트 사루비아, 대안공간 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7년 제29회 중앙미술대전,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젊은모색, 2014년 리움미술관 아트스펙트럼 등 주요 전시 참여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제19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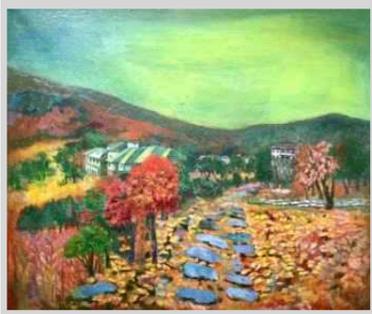
**Gore Deco 장파(07졸 서양)**

장파 동문의 개인전 'Gore Deco'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국제갤러리 K1, K2 전시장에서 열린다. 그는 회화와 글을 통해 '그림'과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된 개념을 비판하며, 여성적 그로테스크와 역사적 타자화 경험을 시각적으로 탐구해왔다. 그는 남성 중심 시각 언어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주의적 주체성을 회화적 어법으로 확장하며 여성의 신체와 감각을 주체적 형상으로 재구성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적 여성 이미지를 재맥락화하



고, 유머와 비틀기를 통해 기존 시선을 전복하는 작업이 전면에서 드러난다. 한편 장파 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인문대학 미학과를 졸업했고 모교 서양화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국제갤러리, 갤러리 기체, 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 두산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두산갤러리 등에 작품이 소장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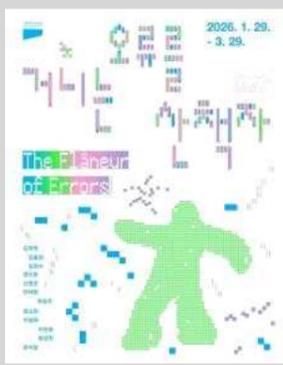
1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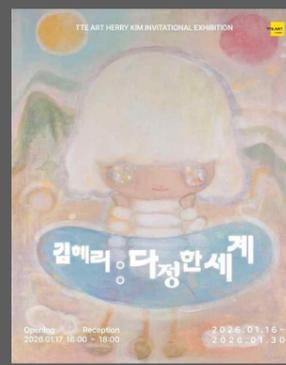
**오, 미라빌레!**  
박덕실(81회화)  
2.4-9  
갤러리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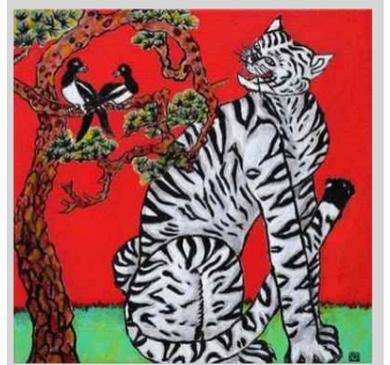
**이민주 초대전**  
이민주(76회화)  
1.30-2.13  
갤러리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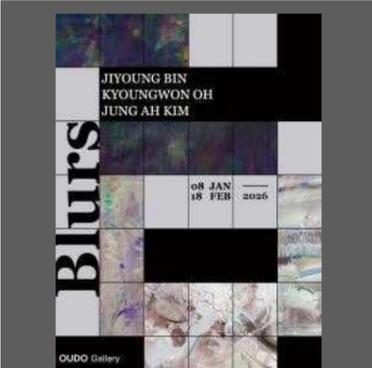
**오류를 거니는 산책자**  
신정균(05서양) 외  
1.29-3.29  
서울대학교미술관



**김혜리 : 다정한 세계**  
김혜리(14서양.조소)  
1.16-30  
테아트 갤러리



**평행 우주를 품은 풍경화**  
김소선(63조소)  
1.16-28  
갤러리내일



**Blurs**  
빈지영(17서양) 외  
1.8-2.18  
오우도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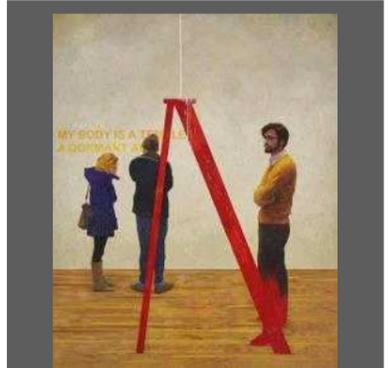
**A Beautiful Companion**  
김병중(74동양) 외  
1.6-1.29  
갤러리베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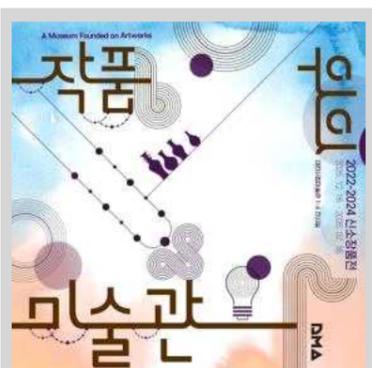
**끝없는 세계**  
정용국(91동양)  
25.12.20-26.1.18  
스페이스윌링앤딜링



**파고**  
이은실(01동양)  
25.12.17-26.1.31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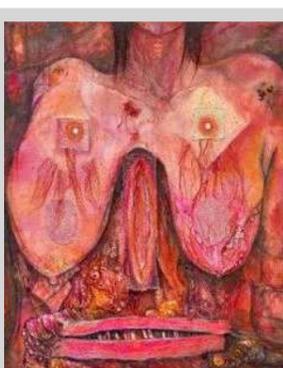
**드라마**  
서상익(97서양) 외  
25.12.17-26.3.22  
미메시스아트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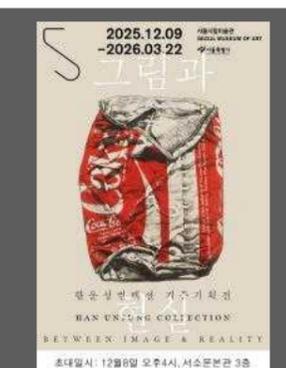
**작품 위의 미술관**  
안규철(73조소) 외  
25.12.16-26.2.18  
대전시립미술관



**제25회 송은미술대상전**  
윤미류(석16서양) 외  
25.12.12-26.2.14  
송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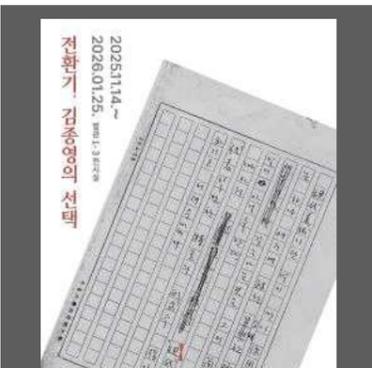
**Gore Deco**  
장파(07줄 서양)  
25.12.9-26.2.15  
국제갤러리



**그림과 현실**  
한운성(65서양)  
25.12.9-26.3.22  
서울시립미술관



**형상의 울림**  
김중학(56회화) 외  
25.12.5-26.3.1  
광주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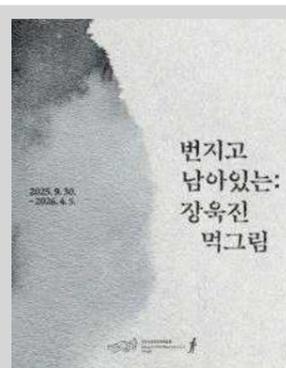
**전환기, 김종영의 선택**  
김종영(교원)  
25.11.14-26.1.25  
김종영미술관



**DTC 청년작가 프로젝트**  
이은경(13동양) 외  
25.11.10-26.1.25  
대전복합터미널 DTC 아트센터



**꽃은 꿀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양혜규(90조소) 외  
25.11.8-26.3.31  
상해당대예술박물관



**번지고 남아있는: 장욱진 먹그림**  
장욱진(교원)  
25.9.30-26.4.5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시시(時詩): 시간의 시**  
박제성(98디자인)  
25.8.8-26.1.25  
울산시립미술관